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주력...전국 유일 국제박람회 등 성과

제주의 가치와 미래를 더하다

<2> 제주 6차산업 어디까지 왔나

6차산업은 '융복합'이다. 1차산업과 제조업 등 2차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뽀나바뀌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6차산업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6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제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6차산업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 수요와 청정자연을 갖춘 제주는 6차산업의 최적지다. 제주의 6차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봤다.

■ 소득 증대·관광자원 다변화 '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제조·가공·체험·관광 등 2차·3차산업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센터장 안순화·제주6차산업센터)를 통해 6차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육성사업의 하나로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제1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역시 '제2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6차산업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판매·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제주지역 6차산업 제품의 판로를 해외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체험관광형 스마트 팜' 구축도 제주도의 핵심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의 하나로 농촌지역의 6차산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 주체에 부응하기 위해 ICT를 접목한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있다. 선진화된 체험시설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인증 경영체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등 6차산업을 통해 관광자원 다변화,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맞춤형 지원으로 인증 경영체 육성

제주도로부터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을 위탁받아 6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제주6차산업센터는 경영체 발굴과 판로 확대 등 육성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6차산업센터는 '우수경영체를 6차산업화 확산 주체로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증 경영체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6차산업센터의 주요 업무는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현장코칭 ▲지역단위

도,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핵심 추진

새로운 관광 수요일자리 창출 등 이바지

컨설팅·판로 확보 등 맞춤형 지원 통해

우수한 6차산업 인증 경영체 발굴 노력

내년 6차산업 고도화 따른 정책 수립

인프라 정비·농촌관광 활성화 등 주력

유통플랫폼 조성 등이다.

먼저 도내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적인 6차산업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과 컨설팅, 판로 확보 등의 맞춤형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제주6차산업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6차산업 경영체는 총 111개다.

제주6차산업센터는 이들 경영체를 대상으로 총 170건의 전문상담 및 현장 코칭을 진행했으며 10회에 걸쳐 판로망 구축에 나섰다.

특히 제주6차산업센터는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입 및 리모델링, 운영 등을 위한 연 30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펀드를 조성해 각종 사업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주6차산업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도와주는 한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차산업 전문가 풀을 구축해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위생 관리, 유통전략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안순화 센터장은 "자금지원과 컨설팅, 유통 및 판로 지원 외에도 우수제품 및 성공 사례를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또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농촌자원융복합사업 등 6차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테나숍으로 매출 '쑥쑥'

제주6차산업센터는 인증 경영체를 발굴해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6차산업센터는 현재 도내·외 대형마트에 5곳과 향만 1곳에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제품과 제주 향토제품을 판매하는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6차산업센터는 정기적으로 유통 품평회를 개최해 안테나숍 입점 상품을 발굴하고 있으며 소비자 반응도, 판매실적, 개선사항, 보완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피드백하고 있다.

특히 우수제품을 선정해 중앙 단위의 판촉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상품 디자인과 포장재, 포장 단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코칭도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6차산업센터는 안테나숍에서만 지난 8월 기준 총 8억8000만원의 매출을 이끌어냈다.

안 센터장은 "현재 운영 중인 안테나숍들은 상설매장 형태로 구성돼 지역 상생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대형 유통기업이 갖고 있는 체계적인 유통 채널을 이용해 제주의 우수 제품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6차산업센터의 노력은 전국 유일의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올해의 6차산업인' 선정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 6차산업의 핵심인 인증 경영체들이 국내·외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주관광을 대표하는 콘텐츠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다.

안 센터장은 "다가오는 2021년은 6차산업 고도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 정비,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제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 맞춰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주슬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모집직종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슬라에너지

742-5775